인천 AG 특수잡기 '시동'

metro

메트로 2014년 9월 15일 월요일 제3354호 www.metroseoul.co.kr

'신구' 케미 '남남' '남녀' 능가

풍년 기원 고싸움 놀이 32회 광주칠석고싸움놀이축제가 14일 오후 광주 남구 고싸움놀이 테마파크에서 열렸다. 동부와 서부의 고가 풍년을 기원하며 하늘로 치솟아 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IT와 패션의 접목 대세로

고객 스타일 파악 웨어러블 기기 잇따라 출시
패션 브랜드와 협업통해 경쟁력 높이기 포석

최근 정보통신기술(ICT)과 패션의 콜라보레이션 행보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는 IT제품을 더 이상 기술 경쟁의 콘셉트로 바라보지 않는다. 패션업계와 협업을 통해 디자인 측면에서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바라보고 있다.

패션업계 역시 ICT와의 접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패션업체들이 트렌드에 맞춰 고객에게 패션 아이템을 제안해 왔다면, 이젠 ICT 기술을 도입해 고객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맞춤형 패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IT업계의 패션업 진출 '주목'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등 IT업체들은 웨어러블 기기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패션업계와 손잡고 신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기어 시리즈, 애플은 아이워치, 구글은 G워치와 구글 글래스 등을 내놓으며 새로운 ICT 기술뿐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월릭선더 앤 모스키노, 니콜라스 커크우드 등 다양한 패션 브랜드와 협업에 나섰다. 이들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삼성전자는 기어 시리즈에 다양한 가죽 스트랩 등을 접목해 패션업계로부터 시선을 받고 있다.

이영희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마케팅팀장 부사장은 지난 6일 열린 '테크X패션 토크'에서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패션 브랜드와의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웨어러블 기기를 중심으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애플 역시 패션업계와의 협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프랑스 명품 브랜드 입생로랑의 전 최고경영자(CEO)인 폴 드네브를 영입했다. 10월엔 영국 버버리의 전 CEO 안젤라 아렌츠를 영입했다. 최근에는 산업디자인 업계 유명 디자이너인 마크 뉴슨을 수석 부사장급으로 데려오기도 했다. 아이워치 출시 행사에서는 제품 종류 앞에 '시리즈' 대신 '컬렉션'이라는 패션 용어를 사용했다.

이동통신업계도 패션업계와의 협업에 주목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는 캐주얼 제조·유통 일괄 의류(SPA) 브랜드인 스파오(SPAO)와 U+보드를 선보였다. U+보드는 미러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LTE 기반의 사물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기기다. 카메라가 탑재돼 고객이 옷을 입은 360도 모습을 돌려볼 수 있고 착샷사진 전송 서비스, 사진출력이 가능하다.

U+보드를 통해 향후 의류매장에서 옷을 보고 구입하는 패턴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류매장의 스마트화 등 ICT 기술을 패션산업에 다양하게 응용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패션업계, ICT로 경쟁력 강화

IT업계가 패션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것처럼 패션업계도 ICT를 활용한 경쟁력 강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미 유니클로, 자라 등 해외 SPA 브랜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 고객 데이터를 적극 수집·활용해 고객 니즈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트렌드에 맞춘 스타일의 옷을 내놓으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생산량과 재고량을 조절해 폐기율을 낮추는 형태로 기업의 수익성도 늘렸다. 국내에서만 의류 폐기물이 연간 약 7만2000t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줄이는 것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비용도 대거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패션 포럼', 디지털 패션 테크 등을 통해 패션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태하 한국패션협회 홍보담당은 "이젠 패션업계도 ICT와의 접목을 외면해선 안된다"며 "글로벌 패션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에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패션에 ICT 도입 검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패션협회는 18일 영제동 엘타워에서 '패션, 빅데이터를 만나다'를 주제로 제7회 글로벌 패션 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엔 국내 패션업계 및 학계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이재영 기자 ly8403@metroseoul.co.kr

더 많은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에서 확인하세요

공지

지면이 확 달라집니다

혁신을 거듭해온 메트로신문이 가을을 맞아 다시 지면혁신을 단행합니다.

'경제가 강한 종합 일간지'를 표방한 메트로신문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증권, 산업 분야의 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연예·스포츠·라이프 등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확장합니다.

독자들의 주말 여행 등 레저와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요일자를 주말판으로 별도 제작합니다.

1. 금융시장면 신설

매일 쏟아지는 금융·증권 분야의 각종 정보를 취사선택해 심층적인 기사를 통해 독자들의 재테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 산업섹션 대폭 강화

재계, 자동차, 부동산, 철강·조선, 통신·방송, IT분야 등을 특화시켜 보다 깊이 있는 산업 분야의 기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3. People & Company면 신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새로운 인생설계나 취미생활을 원하는 분들께 좋은 벤치마킹이 될 것입니다.

4. 주말판 별도 제작

매주 금요일자 메트로신문에는 종합면인 1면에 연예 또는 생활과 관련된 기사가 게재됩니다. 주말여가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예·스포츠섹션과 여행·지역 축제 등 생활 섹션 기사도 전면에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메트로 사랑을 부탁 드립니다

metro

www.metroseoul.co.kr
2014년 9월 15일 월요일

방미 김관진 "IS 격퇴 인도적 지원 검토"

14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방미 기간 김 실장은 카운터파트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측 고위 관리·학계 전문가와 만나 북한 인권과 북핵 문제, 한미동맹 현안, 동북아 정세, 중동 등 국제 현안과 관련한 상호 관심사안을 놓고 협의한 뒤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 북핵문제, 한미동맹 현안 등 폭넓은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이슬람 국가(IS)에 대한 미국의 격퇴 전략과 관련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조치에 대해 지지한다"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윤다혜기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오전 미국 방문길에 오르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담뱃값 2~3년마다 오를 듯

물가 5% 상승시 자동 인상 10년 뒤 6000원 육박 전망

물가 상승률 연동 담뱃값 전망 시나리오

2015년 담뱃값 4,500원 이후 물가상승률 매년 2%로 가정시 단위: 원/갑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년
2,500	4,500	4,635	4,774	4,917	5,065	5,217	5,373	5,534	5,700	5,871	6,048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합뉴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그만큼 담뱃값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2~3년마다 한 차례씩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 인상하기보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그만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정부는 이후 관련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새로운 담배 가격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법 개정 절차도 자동으로 시작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로 설정하면 결국 2~3년에 한번씩 200~300원 가량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소비자물가와 연관시켜 자주 조정하면 흡연자가 가격 부담을 덜 느껴 가격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가 줄어든다"면서 "더 임팩트있게 가격 부담을 느끼게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공무원연금 개혁 '끝장 토론'

당·정·청 이르면 16일 협의 재시도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지난달 당·정·청 간 논의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이번 주 협의에 나선다.

14일 정치권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르면 16일 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달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당·정·청 협의에서는 당과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정부안 도출 과정 등에 대해 '끝장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연금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력하게 대두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내년 가입기간부터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동등하게 맞추는 대신 민간부문 퇴직금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당·정·청 간 개혁 방향이 잡히면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이창우기자 cycloneo@

본 사 인 사

▲ 전보
△ 편집국 온라인뉴스부 기자 용주영
▲ 신임
△ 편집국 생활유통부 기자 김수정

안사하는 윤병세 장관-벳쇼 고로 대사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벳쇼 고로 주한일본대사가 1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2014' 행사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05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양국의 문화 교류 증진을 위해 시작됐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北 잠수함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성 식별"

● 군 당국이 북한 잠수함의 탄도미사일(SLBM) 탑재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까지 북한이 잠수함에 미사일을 탑재해 실제 운용하고 있다는 첩보는 없으나 최근 북한 잠수함의 미사일 탑재 가능성이 일부 식별돼 한미 공조 아래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덕수궁 버스정류소 신설…9개 노선 정차

● 서울 덕수궁 앞 지하철 시청역 3번 출구 옆에 버스정류소가 생겼다.

서울시는 덕수궁 앞뒤 정류소 간 거리가 멀어 이 주변을 이동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새로 생긴 정류소에는 세종문화회관역에서 시청역으로 직진하는 103번·150번·401번·402번·406번·408번·1711번·7016번·7022번 등 9개 버스가 정차한다.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오늘 기소

● 서울중앙지검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통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과 신학용(62) 의원은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한다.

'김무성 보수혁신위' 이번주 출범

위원장에 정병국·유승민·나경원 물망

'김무성 보수혁신위'가 이르면 이번주 중 공식 출범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4일 "혁신위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세월호 국면으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지만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15일 최고위원회의에 인선을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애초 추석 직후 혁신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 개혁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파행 사태가 예견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시기를 저울질해 왔다.

세월호 정국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으로 이어지며 정치권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어찌하지만 공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일정을 계속 지연시키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위원장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정병국 의원(4선), 최근 사무총장직을 고사한 유승민 의원(3선), 7.30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재입성한 나경원 의원(3선) 등이 거론된다. /윤다혜기자

새정치 비대위 다시 '원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안경환·이상돈 투톱 공동비대위원장 영입이 물거품되면서 새정치연합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

14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세월호특별법 협상과 정기국회 의사일정으로 가뜩이나 꼬인 매듭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외부 비대위원장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선택지는 당내부로 좁혀지게 됐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김부겸 전 의원과 이석현 국회부의장,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원혜영 유인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윤다혜기자

수능 재수생 4년 만에 ↑

'쉬운 수능'에 의·치대 정원 확대 영향

11월 13일 시행되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졸업생들이 4년 만에 증가했다. 이는 올해 '쉬운 수능' 기조가 확연해지고 의·치대 학부 입학정원이 900여명 늘어남에 따라 대학을 다니던 학생들이 '반수'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원자는 64만619명으로 전년보다 1만128명(1.6%)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학생은 전체 77.3%인 49만5027명이었고, 졸업생은 13만1538명(20.5%), 검정고시 등은 1만4054명(2.2%)이었다.

특히 졸업생은 작년 대비 3904명(3.1%) 늘어나 2011학년도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엔 수준별 수능 도입으로 수능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수험생들이 재수를 선택하기보다 하향 지원해 안전하게 입시를 치른 반면 올해는 수준별 수능의 폐지로 대입에서 불확실성이 줄어 재수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학원에 다니는 재수생은 줄었지만 대학생들이 수능이 쉽게 나오는 것을 보고 수능에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이 의·치과 대학으로 학제를 변경하면서 2015학년도 의·치대 학부 신입생 정원이 900여명 늘어난 점도 재수 또는 반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다해기자 jdh@metroseoul.co.kr

2014인분 다문화 비빔밥 만들기 14일 오전 경기 수원 마외음악당에서 열린 다문화 한가족 축제에서 내빈들과 다문화가족 대표 등이 2014인분 다문화 비빔밥을 비비고 있다. /뉴시스

인천상륙작전 64주년 '그날을 되새기며' 14일 오전 인천 월미도 앞 해상에서 열린 제64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 재연행사 연습훈련에서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 /뉴시스

우표디자인 공모대전… 오늘부터 접수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은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2014 대한민국 우표디자인 공모대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우표디자인 공모대전'은 대한민국 우표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우표디자인 과정에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행사다.

이번 공모대전은 청소년부문과 대학생 일반부문으로 나눠 개최된다. 공모 주제는 '편지 또는 우체국과 관련된 시와 노래' '행복한 우리 학교'로 1인 2주제 모두 응모 가능하다.

대상 4명(청소년 각 100만원, 대학생 일반 각 150만원), 금상 4명(청소년 각 50만원, 대학생 일반 각 100만원) 등 총 41명에게 상장과 상금(품)을 준다.

당선작은 11월 28일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와 한국우표포털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예정이다.

청도 송전탑 돈봉투 수사… 한전 직원들 "개인 돈"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상북도 청도 주민들에게 추석 때 경찰서장을 통해 돈 봉투를 돌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전력 직원들이 "돈의 출처는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4일 한전 대구경북지사장 등 직원 5명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정확한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한전 대구경북지사가 송전탑 주민 로비용으로 별도 자금을 만들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전은 추석 전인 2일과 연휴기간인 9일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에 사는 주민 7명에게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을 통해 100만~500만원씩 돈 봉투를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이 전 서장을 경질하고 경찰청 차원의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

/이정우기자 ljw@metroseoul.co.kr

안전공단, 말 관리사 재해예방 점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백헌기)은 12일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한국마사회와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를 찾아 말 관리 산업종사자의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했다.

백이사장 등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이날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마장 재해예방 활동현황과 안전보건상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백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전달하고, "말 관리 산업의 특성상 위험요소에 대한 상시점검 및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 왼쪽)이 한국마사회와 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 관계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전달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제공

IS, 영국인 인질 참수

미국 연합전선에 경고… 英총리 "악마의 행동 심판"

반인륜적인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가 영국인 인질도 참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와 스티븐 소트로프에 이어 IS가 인질을 참수한 3번째 사례가 된다.

BBC는 이슬람 과격단체 웹사이트 감시기구 '시테'(SITE) 인텔리전스 그룹을 인용해 IS가 13일(현지시간) 복면을 한 무장대원이 영국인 구호요원 데이비드 헤인즈(44)로 추정되는 인물을 참수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동맹국들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이 동영상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라크 정부와의 협력을 약속하는 장면과 함께 "이 영국인(헤인즈)은 당신의 약속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IS의 주장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부는 공개된 동영상의 진위를 확인 중이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어느 무고한 구호단체 직원을 비열하고 끔찍하게 살해한 것으로, 진짜 악마의 행동"이라며 "우리는 이들 살인자를 추적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할 것이며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 구호단체 '기술협력개발기구'에서 일했던 헤인즈는 지난해 3월 같은 단체에 소속된 다른 직원 등과 함께 시리아로 들어가 새 난민캠프 부지를 둘러보고 터키로 돌아가던 중 무장괴한에게 납치됐다.

함께 납치됐던 이탈리아인 직원은 600만 유로 수준의 몸값을 내고 풀려났지만 헤인즈는 영국 정부가 테러리스트와는 몸값 협상을 벌이지 않는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계속 억류 상태였다. IS는 지난 2일 소트로프를 참수하는 동영상을 배포하면서 다음에는 헤인즈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재영기자 lee.eo@metroseoul.co.kr

마가린으로 만든 아인슈타인 1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푸드아트' 전시회에서 한 여성이 마가린으로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조각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동네 주민 구분하는 '배지'

metro France

프랑스 파리에서 동네 주민을 알아볼 수 있는 배지를 만든 대학생이 화제다.

파리에 사는 대학생 알렉상드르 말두쉬는 이색 배지를 만들었다. 동네별로 배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한 그는 "같은 배지를 하고있는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 배지는 옷에 부착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배지 마크를 통해 길거리에서도 동네 주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일단 배지를 달고 있으면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배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편하게 대화가 가능하다.

아이디어를 구체화 한 뒤 제작에 돈이 필요하자 그는 인터넷을 통해 크라우딩펀드를 진행했다. 총 700 유로(약 94만원)를 모은 그는 배지를 만들어 배포했고 그 인기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브즈 수드리르 쿠 기자
정리=정주리 번역기자

노년층·여성은 독립 반대!

스코틀랜드, 주민투표 앞두고 분열 조짐

스코틀랜드가 영국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할지를 묻는 주민투표(18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찬반 여론이 세대·성별 등에 따라 엇갈리면서 분열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여론조사업체 ICM 리서치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1%는 분리독립을 반대했고 49%는 찬성했다. 부동층은 제외된 수치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연령대별 의견 차이가 두드러진다. 25~34세 청년층에서는 독립 찬성(57%) 응답이 반대(43%)를 크게 앞섰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반대(61%) 의견이 찬성(39%)보다 많았다.

AFP통신은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분리독립에 따른 불확실성을 더 두려워하며 독립이 연금이나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성별에 따라서도 견해차가 나타났다. 가디언 ICM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는 독립 반대(55%)가 찬성(45%)보다 많았지만 남성의 경우 찬성(52%)이 반대(48%)를 앞섰다.

/조선미기자 seonmi@

"사진은 누군가의 삶에 잠시 끼어드는 일"

'사람' 찍는 14년차 사진 작가 홍보팀 스카우트… 책도 펴내

사람이야기

■윤종현 SK C&C 홍보팀 과장

IT서비스 기업 SK C&C에는 독특한 직원이 있다. 직장을 다니면서 14년째 사진을 찍고 있는 윤종현 홍보팀 과장이다.

취미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20회 가량의 전시회를 하며 여러 권의 책도 냈다. 제품 별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가 사진을 잘 찍는다는 평가에 홍보팀에 스카웃 되었고, 요즘엔 사람들에게 강의까지 한다.

"2001년 개인홈페이지가 유행하던 시절 '내가 찍은 사진'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다.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무작정 꽃이나 일출 등을 찍으러 다녔지만 실력이 잘 늘지 않았다. 장비 탓으로 생각하고 카메라를 여러 대 바꾸기도 했지만 변하는 게 없었다. 그러던 중 2004년 사진작가 김홍희 선생님을 만나 사사한 것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

윤 과장의 첫 포트폴리오는 지하철 촬영이다. 동대문운동장에서 충정로까지 3년간 출퇴근하면서 거의 매일 사진을 찍었다. 그는 당시를 가장 사진에 대해 열정적이었던 시절이라고 추억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다. 작은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고 구타를 당할 뻔도 했었다. 하지만 그 때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사회의 아이콘을 읽어낼 수 있게 됐고 동시에 두려움을 떨치는 법을 배웠다."

◆주변 사람들의 삶을 담는 사진

직장을 다니며 사진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윤 과장의 경우 장비 마련을 위해 틈나는대로 주말을 이용해 행사나 공연 사진 등 의뢰 받은 프로젝트 일을 했다. 사진은 보통 주변사람들을 찍었다. 풍경을 찍기 위해 멀리 나가는 것보다 시간이 덜 들었고 그게 더 의미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누군가 삶의 한 순간에 잠시 끼어드는 일이다. 때문에 그 사람의 삶과 의사 속에 들어가 진정성을 갖고 이해할 때 좋은 사진이 나온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라. 집 앞 슈퍼마켓의 주인 내외, 구두 수선점의 수선공 등 이웃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또 가족, 동료 등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손진영 기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지하철 포트폴리오를 찍던 시절처럼 열정적이고 작품성 있는 사진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찍은 최근의 작품들이 그에게는 무척 소중하다. 그는 벌써 아이들이 태어나던 때부터 11년째 가족들의 모습을 꾸준히 사진에 담고 있다. 회사에서는 정년 퇴임을 하는 동료, 결혼을 앞둔 여자 직원의 결혼식 전날 사진 등을 찍어줬다. 홍보팀으로 옮기면서 소위 말하는 '작품 사진'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하다며 웃었다.

윤종현 과장의 지하철 포트폴리오 사진(위)과 둘째 딸을 출산하던 순간의 아내의 모습을 담은 사진

◆사진으로 마음을 전하다

윤 과장은 다음달 서울 역삼동 갤러리 이마주에서 열리는 'SelArtist(셀라티스트)' 전에 참여한다. 셀라티스트란 '샐러리맨'과 '아티스트'를 합친 말로 직장인 예술가를 뜻한다. 이 전시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참여 작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사람들의 삶에 밀착된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고 싶다. 가족 사진은 앞으로도 꾸준히 찍을 것이다. 올해 개인적인 목표는 그 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홍희 선생님, 함께 사진을 공부했던 분들, 결혼식 주례를 서주셨던 고등학교 은사님을 찾아가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기회가 닿는다면 팽목항에도 가보고 싶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포기 없는 정신으로 위기 타계"

60주년 동국제강 계방산 결의대회

회사이야기

중국의 저가 철강의 위협으로 고전하고 있는 동국제강이 계방산(해발 1577m) 등반을 통해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졌다.

장세주 회장과 임직원 500여명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13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 계방산에서 임직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장 회장을 비롯해 남윤영 사장 등 임직원 500여명은 이날 계방산 정상을 거쳐 오토캠핑장으로 이르는 총 12km의 산행을 6시간 여에 걸쳐 마무리 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왼쪽줄 오른쪽 5번째)과 남윤영 사장(앞줄 오른쪽 4번째)이 13일 계방산 정상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 회장은 "올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60년을 창조해야 할 때"라며 "한번 정한 목표는 포기하지 않고 성취하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정신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동국제강은 경기 침체에 대응해 고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해양플랜트용 후판, 내진철근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최근 부채을 축소를 위한 채권단의 요구로 자회사인 유니온스틸과의 합병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illegible] 기자

market index <12일>

코스피	코스닥
2041.88 (+7.70)	570.85 (-3.05)

금리	환율
2.41 (-0.09)	1034.20 (-1.60)

배우자 보다 '돈' 은퇴후 필요한 것

우리나라 여성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돈이 배우자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KDB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는 14일 50세 이상, 잔고 1000만원 이상인 고객 9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선 건강(29%), 돈(24%), 배우자(20%), 취미생활(10%), 친구(7%) 순으로 답이 많았다.

남성은 건강(29%)–배우자(23%)–돈(22%) 순이었지만 여성은 건강(28%)–돈(26%)–배우자(16%) 순으로 응답자가 많아 건강을 제외하고는 남녀 간에 생각 차이를 보였다.

은퇴 희망 연령은 70대 초반(70~74세)이 33.3%로 가장 많았다.

은퇴 후 필요한 금융자산은 5억~10억원(36%), 10억~20억원(25%), 3억~5억원(22%) 순이었다.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자금의 규모는 200만~300만원(44%), 100만~200만원(27%), 400만~500만원(22%) 순이었다. /김민준기자 mjkim@

로또복권 제615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6	17	18	19	23	27	35

순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535,063,417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74,277,214
3등	5개 숫자 일치	1,578,799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illegible]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0361~3
독자센터 (02)721-980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경쟁 넘어 제품 평가까지 '신경전'

삼성 "애플 잡스의 철학 버렸다"…애플 "스마트워치 화면 터치는 무리"

올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경전이 점점 치열해 지고 있다.

삼성과 애플은 그동안 밀어서 잠금 해제, 핀치 투 줌(두 손가락 확대) 등 대부분 스마트폰의 핵심 기술을 두고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특허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품 기술과 디자인을 두고 치열하게 갈등을 빚었던 특허 침해 소송과 달리 경쟁사의 신제품을 겨냥해 교묘한 흠집내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애플이 미디어행사를 열고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등 신제품을 전격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공개된 아이폰6는 기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4.7인치와 5.5인치 두 가지 종류로 출시됐다. 애플이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폭도 넓어졌다. 소비자 입장에서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경쟁사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팀 쿡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공개. /AP연합

이 때문일까. 애플의 신제품 발표 직후 삼성전자 필리핀은 삼성모바일 공식트위터를 통해 고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큰 스크린을 장착한 폰들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인용했다. 스티브 잡스는 4년 전 아이폰 기자회견에서 "큰 스마트폰은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애플이 발표한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기존의 아이폰에 비해 화면이 커진 것을 두고 잡스의 철학을 버린 것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반면 애플은 애플워치를 공개하면서 앞서 삼성이 IFA 2014에서 선보인 기어 S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바로 애플워치에 탑재된 디지털 용두를 소개하면서다. 애플워치는 손목시계의 용두(디지털 크라운)처럼 보이는 부분을 돌리는 방법으로 화면을 확대·축소·탐색이 가능하다. 물론 디지털 터치(감압식 가능)도 지원한다.

애플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조너선 아이브는 "두 손가락으로 스마트워치의 작은 화면을 터치해 줌인·아웃 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애플 워치의 용두를 돌려 제품을 콘트롤 하는 게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화면을 터치해서 사용해야하는 삼성 기어S의 불편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쟁과 광고에 이어 경쟁 제품 평가까지 갈수록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중 누가 웃을지 귀추가 주목 된다.

/장성윤기자 sys@metroseoul.co.kr

'서울엑페스티벌' 14일 서울 광장에서 열린 '제3회 서울위(메트로)커이션페스티벌' 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위를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강 이남·경기 남부 '1순위 마감'

9·1 대책 이후 양극화 여전

9·1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분양시장에 훈풍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1순위 자격이 기존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어드는데다 청약가점제 지자체 자율운영 전환(2017년), 3년간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청약통장 일원화 등 청약 관련 제도가 비뀜에 따라 연내 분양 아파트에 청약자가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분양시장에도 철저하게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옥석을 가려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올해 1순위 마감된 단지(9월 11일 기준) 지역과 주요 특징을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는 강남구, 강서구, 서초구 등 총 3곳에서 4개 단지의 1순위 마감이 나왔다. 강남구는 경복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힐스 논현', 강서구는 긴등마을주택조합 아파트인 '마곡 힐스테이트', 서초구는 '내곡지구 2-6단지'가 1순위 마감됐다. 그밖에 나머지 지역은 3순위 마감 또는 미달됐는데 강북에서는 1순위 마감 단지가 1곳도 없었다.

경기에서는 1순위 마감을 기록한 단지들은 대체로 신도시 택지지구에서 분양됐다. 위례·동탄2신도시에서 각각 3개 단지, 부천옥길·시흥목감·하남미사지구 각각 1개 단지 등이다. 신도시·택지지구를 제외하면 광주시에서 분양된 'e편한세상 광주역'이 2.5블록에서 각각 1순위 마감된 것이 유일하다.

지방에서는 분양이 잘 되는 지역에만 청약자가 몰리는 '청약 쏠림현상'이 나타났다. /김두탁기자 kim@

'경조사 스미싱' 주의
결혼철 맞아 극성

가을 맞이 '경조사 스미싱' 주의보가 내려졌다.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중인터넷에 따르면 본격적인 결혼철을 맞아 각종 경조사 문구를 담은 스미싱이 늘어나고 있다.

피해를 막기 위해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에 발송되는 메시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악성코드 유포 공격의 70% 가량은 업무 시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다. 사람들이 문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퇴근 시간이나 근무 중에는 스미싱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출처가 불분명한 청첩장 메시지와 안부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다. URL을 잘못 누르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백신 앱이 가짜 뱅킹 앱으로 위장돼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전화번호부 속 지인에게 악성코드 메시지가 자신도 모르게 전송될 수 있다.

스마트폰 보안 앱 설치도 방법이다. '알약 안드로이드'는 악성 파일 및 악성 앱을 검사·치료하고 스미싱까지 차단한다. '스팸번호 감별 앱'인 '후스콜'이나 '후후'는 모르는 전화번호의 출처를 사전에 알려준다.

/양성운기자 ysw@

임영록 중징계 후 파장 확산…17일 운명은

Issue&View KB금융 앞날은

금융당국, 검찰 고발 등 전방위 압박 나서
LIG손보 인수 차질 등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도 오는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 회장의 해임 여부를 논의한다.

KB금융은 이번 징계 확정으로 경영 공백 장기화와 LIG손해보험 인수 지연 등 업무차질, 이로인한 영업 타격, 이미지 추락 등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는 임 회장에 대한 정부의 곱지 않은 시각이 그대로 묻어난다. 지난 4일 최수현 금감원장의 중징계 결정 직후 물러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과 달리 임 회장은 그간 두차례의 기자간담회와 계열사 사장단 성명을 통해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고 법적 구제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런 모습은 금융당국, 넓게 보면 정부 전체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결국 금융위는 제재 수위를 한 단계 올려 3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또 지난 13일 KB금융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금융감독점검회의'를 열고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핵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민은행을 포함한 전 계열사에도 2~3명씩 감독관이 파견된다.

이와관련 KB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의 해임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이사회를 17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KB이사회가 그동안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임의결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KB금융은 패닉에 빠졌다. 일단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웅원 KB지주 부사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박지우 부행장을 행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KB금융의 경영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LIG손해보험 인수 등에서 당국의 비협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KB금융은 LIG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으며, 승인 여부는 내달 일 금융위 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사진 왼쪽부터)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 /손진영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승인을 거부하면 KB금융의 LIG손보 인수는 무산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의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임 회장은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으로 갈 경우 임 회장을 둘러싼 금융당국과의 공방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KB내분 사태가 어떤식으로 정리되더라도 감독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에 대해선 문책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금감원 제재심 위원에는 금융위 간부도 포함돼 있어 금융위 스스로 결정을 번복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김민지기자 mini@metroseoul.co.kr

외환銀, 직원 898명 징계 심의

사상 최대 규모 '강경 대응'

하나은행과의 조기통합 추진으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외환은행이 노조에 채찍을 꺼내 들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임시조합원 총회 참석과 관련한 노동조합원 89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징계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현재 서면으로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을 받고 있다"며 "인사위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겠다는 사람도 있어 심의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 사안으로 약 900명의 직원이 인사위에 넘겨져 징계를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은행권 사상 최대 규모로, 닷새에 걸친 인사위 개최도 이례적이다.

징계 사유는 은행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근거한 업무지시 거부, 업무 방해, 근무지 무단 이탈 등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일 외환은행 노조가 개최하려다 무산된 임시조합원 총회에 참석했거나 참석을 위해 자리를 비웠다.

외환은행 측은 임시조합원 총회가 쟁의조정 기간 중의 쟁의행위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또 법무법인의 의견을 수 차례 직원에게 공지했는데도 자리를 비운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체 직원의 10%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은 정상적인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가만히 덮고 넘어가면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대규모 징계를 계기로 조직 분위기를 다잡고 조기통합에 반발하는 노조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노조 측은 해당 총회가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해당하므로 이번 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근용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경영진이 진정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타협을 원한다면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규모 징계는 노조 파괴 공작으로 규정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신한銀, 최우수 자산관리 수상 신한은행은 홍콩의 금융전문지 디에셋(The Asset)이 주최한 '트리플 A 어워즈'에서 3년 연속 국내 최우수 자산관리 회사로 선정됐다. 홍콩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진형 신한은행 홍콩지점장이 수상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차이나머니 '황색 돌풍' 국내 기업 긴장

게임·화장품 이어 의류업체도 '꿀꺽' … 아가방 주가 60% 급등

차이나머니의 '황색 돌풍'이 국내 게임·화장품 업종에 이어 의류업계에도 불어닥쳐 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중국 내수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 업체의 브랜드와 기술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중국 자본이 국내 업체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이트레이드증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국내 유아복 전문업체인 아가방앤컴퍼니가 중국 의류업체인 랑시그룹에 매각됐다.

아가방은 최근 출산율 하락으로 국내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상반기 16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뒤 올해 상반기엔 적자규모가 9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중국은 유아용품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중국 정부가 70년대부터 시행해 온 1가구 1자녀 정책이 연말까지 사라지면 유아용품 시장의 고성장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한국 유아복 업체 인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유아복 브랜드 '블루독'과 '밍크뮤'를 보유한 서양네트웍스도 1960억원에 홍콩기업인 리앤펑으로 넘어갔다.

국내 시장 부진에 지지부진하던 관련 업계 주가는 중국발 기대감에 되살아났다.

코스닥시장에서 아가방의 주가는 올 들어 60% 급등했다. 특히 중국 업체로의 매각 소식이 발표된 3일 전후로 4거래일간 50% 이상 가파르게 치솟았다.

유아용품 업체인 보령메디앙스의 주가도 지난해 말 대비 33% 넘게 올랐다.

차이나머니의 관심은 유아복은 물론, 의류업종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별 그대' 등 한국 드라마와 연예인의 현지 인기로 한류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영향이다.

오민아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중국 자본이 최근 2~3년새 국내 의류업체 5곳 이상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류가 자국 산업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자 발빠른 중국 기업들이 (아예) 국내 기업을 인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기자 hjkim@

IFA2014에 선보였던 삼성전자 크리스탈블루 세탁기(왼쪽)와 LG전자 드럼세탁기.

'세탁기 파손' 진흙탕 싸움

삼성전자 "매장 CCTV 확인" LG 측 고발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14' 기간에 불거진 세탁기 파손 논란이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영원한 라이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또다시 진흙탕 싸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14일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LG전자 HA사업본부 조성진 사장을 비롯해 세탁기 담당 주모 임원, 신원미상 임직원 등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직원이 자사의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도어연결부(힌지)를 고의로 파손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당시 사건을 언급하며 "해외 출장 시 경쟁사의 현지 제품과 사용 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어느 업체든 통상적으로 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LG전자는 이날 오후 '경쟁사 수사의뢰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특정회사 제품을 파손시켜 해당 이미지를 실추시킬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임직원들이 직접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지 매장은 일반 소비자 누구든지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살펴볼 수 있는 양판점"이라며 "다른 회사 세탁기들과 달리 유독 특정회사 제품은 세탁기 본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힌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이번 일이 글로벌 세탁기 1위인 LG전자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섣사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엔 최고경영자(CEO)까지 걸린 사안이라 날선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illegible]기자

9·1부동산 대책 '약발' 먹힌다

아파트 분양 문의 평소 2~3배 … 위례신도시 프리미엄 '억' 소리

7월부터 이어진 정부의 잇단 부동산규제 해소가 드디어 약발을 발휘하고 있다. 그간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열기가 분양시장을 비롯해 경매·상가시장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분위기가 강남에만 국한되지 않고 강북·수도권까지 퍼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신규분양 기본, 미분양도 판매 북새통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이 이달 말 분양 예정인 위례자이 아파트의 문의가 이달 들어 2배가량 늘었다. 신도시 건설 중단, 청약제도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9·1부동산대책 발표를 계기로 평소 200건 정도 걸려오던 전화가 400여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문의전화가 급증하면서 분양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본사 콜센터로 항의전화가 걸려올 정도"라며 뜨거운 분위기를 전했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3차를 재건축해 공급하는 '래미안 서초' 상담건수도 3배 가까이 뛰었다.

미분양 소진 속도도 빠르다. 지난 6월 SK건설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분양한 '꿈의숲 SK뷰'는 8월 중순 이후에만 전체 물량의 15% 가까운 세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청라 더샵 레이크파크'도 올 초 30%에 달했던 미분양 물량이 현재 10%로 줄었다.

◆분양권 프리미엄만 '억 소리'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공공분양의 전매제한이 단축되면서 분양권시장도 뜨겁다. 특히 수도권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위례신도시는 연내 7000여 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 조사 결과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는 4개 단지 2550가구다. 여기에 이달 말부터 12월까지 7개 단지 4814가구의 전매제한이 추가로 해제돼 올해에만 총 11개 단지에서 7364가구의 거래가 가능하다. 분양권 프리미엄은 단지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형성된 상태다.

경매시장도 북적이긴 마찬가지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9·1대책 발표 후 추석 전까지 5일간 수도권 경매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8.5%로, 전월(86.9%) 대비 1.6%포인트 높아졌다. 경쟁률을 의미하는 응찰자 수도 같은 기간 8.1명에서 9.6명으로 1.5명 늘었다.

/[illegible]기자

10대 그룹 땅 여의도 62배

국내 10대 그룹이 가진 땅이 여의도의 6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주요 그룹 가운데 삼성그룹의 토지가 가장 많이 늘었다.

14일 재벌닷컴이 자산 순위 10대 그룹 소속 92개 상장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토대로 업무 투자용 토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계열사가 보유한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억8120만㎡으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약 290만㎡)의 62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10대 그룹의 보유 토지 면적은 2008년 1억6900만㎡보다 7.2%(1220만㎡) 증가했다. 토지가액(장부가 기준)은 2008년 45조6590억원에서 지난해 말 61조9890억원으로 35.8%(16조3300억원) 늘었다.

지난 5년간 토지 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16개사)의 보유 토지 면적은 2008년 3910만㎡에서 지난해 말 4450만㎡로 540만㎡ 증가했다. 지난해 삼성물산 등이 서울레이크사이드를 인수하면서 416만㎡의 토지가 새로 편입됐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

/[illegible]기자

롯데마트, 生오미자 판매 14일 롯데마트 행당역점에서 모델들이 문경산 오미자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이색채용·금융-인성평가·공기업-스펙초월

채용 트렌드 공략법

그룹은 이색채용방식, 금융권은 인성평가, 공기업은 스펙초월채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취업포털 사람인은 하반기 취업 성공을 위한 '기업 채용 트렌드 공략법'을 정리해 발표했다.

◆주요 그룹, 직무역량 강조하고 다각화된 채용방식 활용해야 =주요 그룹의 공채 지원 서류를 살펴보면 '직무역량'에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다. 현대자동차의 자기소개서는 본인이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LG는 어학성적, 자격증 등 일부 항목을 이력서에서 없앴다.

공채 외에 오디션, 캐스팅 등 다각화된 채용 방식이 확산되는 추세도 여전하다. KT는 '스타 오디션'을 통해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에게 서류전형을 면제해주고 있다. 애경(유통부문 AK몰 등)은 채용 홈페이지가 아닌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사지원을 받고 있다.

인문학적 소양, 그 중에서도 역사관을 강조하는 특징이 올 하반기에 두드러지고 있다. 삼성, SK, LG, CJ 등 주요 그룹사마다 인·적성검사에 역사관련 문항을 포함시켰다. 단기간 학습이 어려운 분야인 만큼 다독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권, 인성평가 대비하고, 전공특성 살려라 =최근 금융권에서 내부 직원들의 비리나 횡령 등 사고가 많았던 만큼 직원들의 윤리의식이나 품성을 강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은행은 자기소개서에 자배, 배려, 행복 등의 제시어를 담은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에세이로 작성하도록 했으며 직업윤리를 물어보는 문항도 넣었다. 신한은행도 인재상에 부합하는 본인의 스토리를 녹여냈는지 여부가 서류합격의 승부처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경제와 시사 중심이었던 필기시험에 국어, 국사과목의 비중을 늘렸다. 지원자가 읽은 인문도서를 서류에 적어내고, 이를 면접 질문으로 활용하는 독서면접은 이미 유명하다. /이국명기자 kmlee@

강원도 문화도민운동

2014 Dancing Carnival

Rio in Wonju

역동하는 강원! 춤추는 원주!

일시 2014 9.17~21

장소 원주따뚜공연장, 원일로일대, 장미공원길

Best 15 최종결선

18:30~21:30 따뚜공연장 9월 21일(sun)

경연방법 200m 거리를 5분 이내 준비!
댄스, 무술, 마칭밴드, 분장 퍼레이드 등 무엇이든 가능!

장소	9월 17일	9월 18일	9월 19일	9월 20일	9월 21일
원일로 18:00~21:30	다이내믹 스페셜팀 경연	다이내믹 스페셜팀 경연	다이내믹 스페셜팀 경연	다이내믹 스페셜팀 경연	–
따뚜공연장 19:00~21:30					BEST15 공연 18:30~21:30
장미공원길 17:30~19:00	–				–

9.17 9.18 9.19 9.20 9.21

임의택의 차차차

■ 벤츠 뉴 C클래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실내 넓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갖춰 뛰어난 연비…가격은 경쟁차보다 비싸

국내 수입차시장은 D세그먼트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BMW 5시리즈,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렉서스 GS 등이 각축하는 시장이다.

그 다음 인기 있는 시장이 C·D세그먼트다. BMW 3시리즈와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아우디 A4, 렉서스 IS, 인피니티 Q50 등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 이 시장의 핫이슈는 벤츠 뉴 C클래스의 등장이다. 2007년 이후 7년 만에 등장한 5세대 모델은 이 시장 최강자인 BMW 3시리즈를 위협하고 있다.

기자는 지난 7월 언론시승회에서 뉴 C클래스를 탄 이후 이 차를 최근 일반도로에서 다시 시승했다. 트랙에서 잠시 만나본 느낌으로 차를 단정 지어 평가할 수 없어서다.

시승차는 2.0ℓ 가솔린 터보와 2.2ℓ 디젤 터보 중 디젤 모델이 배정됐다. 사실상 C클래스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할 모델이다.

최고출력 170마력의 엔진은 4세대의 것을 가져왔다. 출력과 토크는 그대로지만 뉴 C클래스의 커진 차체를 이끌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같은 엔진이지만 정숙성은 더욱 향상됐고 가속 때의 반응도 매우 부드럽다.

인상적인 것은 도로주행에서의 승차감이다. 4세대의 경우 착 달라붙는 핸들링이 일품이었으나 승차감이 조금 딱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5세대 모델은 4세대 C클래스와 현재의 E클래스의 중간 정도 성격을 보인다. 덕분에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안락함이, 스포티한 드라이빙에서는 단단한 승차감이 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인디비주얼 등 총 다섯 가지로 조절되는 주행모드도 특징. 센터콘솔에 달린 스위치를 앞뒤로 밀어서 간단히 조절하도록 했다. 각 모드별 차이는 명확해서 운전자가 원하는 상태로 재빨리 조정된다. 아우디 A4의 경우 인디비주얼 모드에서 엔진, 서스펜션, 변속기 등을 세분화해서 조절이 가능하지만 뉴 C클래스는 엔진과 변속기, 에어컨의 세팅만 바꿀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대신 뉴 C클래스는 에어 서스펜션인 에어매틱 어질리티 패키지(AIRMATIC Agility Package)를 옵션으로 고를 수 있다.

뒷좌석은 E클래스 수준으로 넓어졌다. 구형 C클래스보다 80mm나 길어진 휠베이스 덕분이다. 기존 C클래스에서 E클래스로 갈아타려는 고객뿐 아니라 C클래스를 계속 타고 싶은 고객도 고려한 벤츠의 의도를 알 수 있다.

고속도로 위주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연비였다. 복합연비 17.4km/ℓ의 뉴 C클래스는 평균시속 100km로 달린 결과 스포츠모드에서는 18.9km/ℓ, 컴포트모드에서는 19.8km/ℓ, 에코모드에서는 무려 22.7km/ℓ를 나타냈다. 고속도로 표시연비 21.3km/ℓ를 가뿐히 뛰어넘는 결과다.

뉴 C클래스는 실내공간과 편의장비, 연비, 승차감 등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을 했다. 다만 내비게이션 완성도는 여전히 지적대상이다. 이번 시승 중에는 내비게이션에서 검색되지 않는 도로가 다소 있었다. 최근에 시판되기 시작한 모델임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경쟁차보다 다소 비싼 가격도 아쉽다. 가솔린 모델은 4860만~5420만원, 디젤 모델은 5650만~5800만원이다. 동급 경쟁차보다 대략 500만~1000만원 비싸다.

/임의택기자

CJ슈퍼레이스, 야간경기 흥행 '대성공'

김의수·이재우, 우승컵 들어올려

슈퍼6000 클래스 우승을 차지한 김의수(가운데)

<국산차 수입차 인기모델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YF쏘나타	1,300	1,410	1,550	1,610	1,800
기아	K5		1,480	1,600	1,750	1,770
쉐보레	말리부			1,840	1,650	2,110
르노삼성	SM5		1,270	1,340	1,550	2,290
BMW	3시리즈	2,470	2,590	2,830	3,520	4,010
미니	쿠퍼2세대	1,790	1,850	1,920	2,410	2,450
벤츠	뉴C클래스	2,600	2,790	3,000	3,230	4,040
아우디	뉴A4	2,370	2,590	2,790	3,130	3,590
폭스바겐	골프6세대	1,590	1,970	2,250	2,430	2,590
혼다	CR-V	1,590	1,790	2,150	2,830	2,900
	올뉴어코드	1,310	1,090	1,83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초가을 밤을 가로지른 나이트레이스의 승자는 김의수(슈퍼6000 클래스, CJ레이싱)와 이재우(GT 클래스, 쉐보레레이싱)였다.

13일 밤 태백레이싱파크에서 열린 2014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전은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나이트레이스로 진행됐다.

슈퍼레이스 최상위 종목으로 배기량 6200cc에 436마력을 자랑하는 슈퍼6000 클래스에서는 CJ레이싱 소속 김의수가 올 시즌 야간레이스의 1인자로 이름을 올렸다. 87.5km, 35바퀴를 도는 결승 경기에서 김의수는 첫 번째 그리드에서 출발, 시종일관 선두를 유지하며 36분49초841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공인경기 출전 100회 기록을 세운 김의수는 2012년 이후 2년 만의 나이트레이스 우승을 자축했다.

슈퍼6000 클래스 2위와 3위는 손에 땀을 쥐는 격전 끝에 각각 엑스타레이싱의 이데유지와 CJ레이싱 황진우가 차지했다. 2번째 그리드에서 출발한 이데 유지는 초반 스타트 난조로 선두권에서 밀렸지만 차곡차곡 순위를 끌어올린 끝에 18바퀴에서 3위였던 김중군(아트라스BX 레이싱)을 앞지른 후 36분50초857로 2위로 들어왔다. 그 뒤를 황진우(CJ레이싱)가 36분52초948을 기록하며 3위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슈퍼6000 클래스 팀 포인트 부분에서는 김의수와 황진우가 각각 1위(25점)와 3위(15점)에 오르면서 40점을 추가했다. CJ레이싱팀은 총 175점을 기록, 지난 경기까지 선두였던 아트라스BX 레이싱팀(157점)을 18점 차이로 추월하며 팀 포인트 부분 1위에 올랐다.

태백레이싱파크의 30바퀴 등 75km를 질주하며 우승을 다툰 GT 클래스에서는 쉐보레레이싱의 이재우가 31분03초544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재우는 예선 1위 기록으로 그리드 선두에서 경기를 시작해 초반부터 2위와 격차를 벌였다. 결국 결승까지 1위를 차지하는 폴투피니시를 달성한 이재우 선수는 지난해 나이트레이스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그 뒤를 이어 최해민(CJ레이싱)이 31분11초325의 기록으로 2위에 올랐으며, 안재모는 3위를 차지했다.

/[illegible]기자

현대차가 프랑스 프로축구팀 올림피크 리옹 후원 연장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 올림피크 리옹 후원

현대자동차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프랑스 리옹의 스타드 드 제를랑에서 현대차와 올림피크 리옹 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차-올림피크 리옹 후원 연장 조인식'을 가졌다. 현대차는 2014~2015 시즌, 2015~2016 시즌까지 2개 시즌에 대해 '올림피크 리옹' 후원을 연장하며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번 후원 계약을 통해 선수단 유니폼, 이동버스, 경기장 내 광고판 등에 현대차 로고를 적용하고 홈구장 스타드 드 제를랑에 차량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올림피크 리옹과 전북 현대간의 친선경기도 후원기간 중 2회 개최된다.

/[illegible]기자

THE K FESTIVAL

2014.OCT.3-4th @인천송도달빛축제공원

LINE UP

10.3.FRI

- NEW 블락비 BLOCK B
- 데이브레이크 DAYBREAK
- NEW BOYS REPUBLIC 소년공화국
- 술탄오브더디스코 SULTAN OF THE DISCO
- NEW 언터쳐블 UNTOUCHABLE
- 정준일 JUNG JUN IL
- 제이레빗 J RABBIT
- 쏜애플 THORNAPPLE
- NEW 블래스트 BLAST
- 낭만유랑악단 NANGMAN BAND

10.4.SAT

- 비스트 BEAST
- NEW B.A.P 비에이피
- 포미닛 4MINUTE
- 10cm 십센치
- G.NA 지나
- 딕펑스 DICKPUNKS
- 솔루션스 THE SOLUTIONS
- 몽니 MONNI
- 옥상달빛 OKDAL
- NEW 호소 HOSO
- 페이퍼백 PAPERBAG

10% 티켓 할인판매
8월 26일 – 9월14일

당돌한 우승 소감과 총리 오찬

뉴스룸에서
이종권 <편집위원>

#1 지난달 25일 제68회 리틀리그 월드시리즈 결승전이 열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리엄스포트 라마데 구장. 한국 리틀야구 대표팀은 이날 미국 대표 재키로빈슨 웨스트 리틀리그(시카고)팀을 꺾고 29년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직후 야구 꿈나무들은 당돌한 소감을 밝혔다. 한 선수가 "청와대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밝히자 외신들은 "한국 선수들이 세계대회 우승으로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고 보도했다.

#2 우승후 귀국길에 올라 선수단이 도착한 26일 늦은 저녁 인천공항 입국장. 선수단은 가족과 친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메달을 목에 걸어준 대한야구 협회장은 박 대통령이 보낸 축전을 읽어주며 감격을 되새겼다.

#3 선수단이 귀국하고 일주일여가 지난 이달 4일 삼청동 총리공관. 정홍원 국무총리가 선수단을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줬다"며 격려했다.

리틀야구 선수단의 청와대 방문무산 스토리의 전말은 이렇다. 선수들은 우승직후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어했다. 몇몇 외신들은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화답하듯 대통령은 축전을 보내줬고 귀국 환영식에서 축전은 다시 낭독됐다. 대표단은 대통령이 자신들을 만나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총리와의 오찬으로 끝났다. 이번 리틀 선수단의 선전에 야구 관계자들은 "2009년 WBC준우승이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에 맞먹는 한국야구의 경사"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 선수단은 중학교1학년으로 구성된 팀이다. 시합할때는 어른스럽고 대담한 경기운용도 서슴지 않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장난꾸러기 소년들이다. 이런 까까머리 10대초반 소년들의 소박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리와의 만남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린 마음에 상처나 받지 않았을까 걱정된다.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말 그대로 의전과 경호등을 감안 사전 조율이 선행되어야함은 물론이다. 그렇더라도 리틀야구 선수단의 만남이라는 희망이 물거품이 된 사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올해는 세월호 수습과 관련 청와대 초청 어린이날 행사도 취소된 마당이라 더욱 그렇다. 대통령의 소통부재라기보다는 청와대 실무진의 업무착오였으면 한다.

규제 개혁, 공무원들이 달라져야 성공한다

정론탁설
유병팔 <언론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올인 하다시피 열정을 쏟고 있다. 이달 초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밝힌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는 지금까지 어느 회의 때에도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모두발언부터 "지금 우리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골든타임에 주어진 기간이 많지 않다"면서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은 아닌지 모두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이를테면 "규제를 풀려면 눈 딱 감고 과감하게 풀어라" "이만큼 줄여서는 간에 기별이나 가겠는가" 이러한 발언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듣기에 따라서는 민망할 정도로 장관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기도 했다.

사실 정부의 규제가 우리경제의 걸림돌로 지목된 지는 오래된다. 지난 1960년대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주도형 경제운용을 하다 보니 많은 폐해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원리에 맞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끝내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따라서 지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공무원의 자세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갑'의 입장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민원인을 대할 때 역지사지의 자세로 임해야 하나 인위적인 법규해석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나와 빈축을 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복지부동은 물론 보신주의가 만연해 공직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법률이란 시행령 시행세칙 조례 등으로 얼마든지 그물망을 치고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다 잘못돼도 관대한 평가를 내려주겠다고 해도 아직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민원해결에 앞장서는 풍토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뿌리 깊은 적폐는 야당의 정치적인 장애보다 오히려 더 큰 장벽이다. 우리경제가 저성장의 그늘을 벗어나 활기를 되찾자면 무엇보다 접점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과 기업가가 합심해야 가능하다. 규제개혁 이전에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할지도 모른다.

포토프리즘 |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14일 오후 서울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며 가을 풍경을 즐기고 있다. 어느새 더위는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끊이지 않는 물 티슈 안전성 논란

기자수첩
박지원 <생활경제부 기자>

이 가을 물티슈의 안전성 문제로 관련업계가 떠들썩하다.

이번 논란은 한 언론이 물티슈 성분 중 보존제로 쓰이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성분이라고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해당 물질을 사용한다고 거론된 업체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은 정식 화장품 원료로 사실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또 소비자가 원한다면 모두 환불 조치를 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실제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화장품의 살균·보존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그 사용량이 0.1% 이하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관리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중에 팔리는 물티슈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을 뿐 명확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일부 업체들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마치 독성 성분인양 자사 제품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오히려 안전성 문제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사실 아이들의 입과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에 안전성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반가운 일은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는 물티슈는 내년 7월부터 화장품으로 관리된다는 점이다.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보존제·자외선차단성분·색소 등 269종이 지정돼 있어 안전관리가 더 엄격하다. 이를 계기로 끊이지 않는 물티슈의 안전성 논란이 사라지길 기대해본다.

약자를 위한 생각의 설정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수입차의 연간 판매량이 10만 대를 훌쩍 넘었다. 판매 내용을 보면 자존에서는 벤츠 BMW 아우디 중심에서 벗어나 폭스바겐 벤틀리·랜드로버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판매지역 역시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서 전국구로 확산됐다. 이렇게 수입차 전성시대가 열린 이유는 소비자의 소득 증대 때문만이 아니다. 수입차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같은 차라고 말한다. 또 가격 대비 성능이나 만족도가 월등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평가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수입차에 대한 구매력이 다중소에만 것을 보면 흐름이 심상치 않다.

담뱃값 인상 폭풍이 무섭다. 정부는 10년 만에 2000원 인상을 추진하는데 그 당위성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앞세웠다. 흡연율을 현재보다 8% 떨어뜨리고 지속적으로 물가 상승에 비례해 인상을 거듭하면 2020년쯤 OECD 평균 흡연율인 26%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추가 발생될 세수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입방아를 찧는다. 왜 매번 OECD가 기준일까. OECD의 수치는 정부 주장의 근거로만 쓰일까. 세수 증대의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왜 없을까. 사치에 가까운 기호 품목도 많은데 하필 담배일까.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의 생산 활동에 다양한 지원을 한다. 최근에는 디자인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신진 디자이너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이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겸비한 탓에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나 이벤트 참가를 지원하기도 하고, 새로운 디자인 개발을 위한 현금 지원도 한다. 문제는 이런 지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는 매우 적은데 그중에 타워팰리스가 거주지인 대상자가 있다는 점이다. 주거지나 개인 재산의 정도가 지원 대상자 판단에 영향을 줘야 하는가는 차치하고 세금의 쓰임이라는 측면에서 더 적절한 사람이 많을 거란 지적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싶다.

사람들은 내수용 자동차보다 수출용 자동차가 성능 대비 가격이 우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살림을 위해서일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지 못한다. 지원금은 현실에 힘든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이 생각이 편견이든 무지의 소산이든 아니면 음모든 중요하지 않다. 배려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에 대한 고민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드러난 생각이기 때문이다. 약자를 위한 생각의 설정이 필요하다.

/한국트렌드연구소(www.itr.co.kr) 대표

유통업계, 인천AG 특수 잡기 '시동'

롯데칠성·세븐일레븐·아모제푸드 등 공식후원사 주축

오는 19일 인천에서 개막하는 '제17회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식음료 업계가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특수 잡기에 나섰다.

먼저 이번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식 케이터링 공급 업체인 아모제푸드는 추석 당일인 지난 8일 선수촌 식당에서 선수단과 대회 임직원과 함께 합동차례를 지냈다. 이 업체는 대회 기간 1만3000여명의 선수·임원에게 식사를 제공한다. 437여종의 각국 특유 음식과 함께 스낵류·간식·에스닉 할랄푸드 메뉴를 이용한 푸드코트 서비스를 비롯해 각 경기장의 식음료 코너도 운영해 관람객의 편의를 돕는다.

음료부문 공식후원사인 롯데칠성음료는 한정판 '응원사이다' 2종과 인천아시안게임 공식로고 등 라벨에 새긴 '스케쳐 패키지'(사진 왼쪽)10만개를 한정수량으로 제작 판매한다. 또 대회 기간 중 응원사이다 패키지 내 QR코드를 통해 바로 접속 가능한 직영몰인 롯데칠성몰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하루에 획득한 금메달 수만큼 다음날 '골엣 이벤트'를 열고 해당 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포인트를 증정하는 '금메달 탱큐!' 이벤트를 벌인다.

공식 편의점으로 선정된 세븐일레븐은 주경기장과 남동체육관, 문학박태환수영장에 각각 임시 편의점을 운영한다.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해 4개 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선발 배치했다.

또 삼각김밥·도시락 등 푸드 상품 구매 후 영수증 뒷면 번호 추첨을 통해 711명에게 경기 관람권을 준다. 세븐일레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미니 스포츠 게임에 참여한 고득점자를 선정해 순금 메달,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편의점 단독으로 인천아시안게임 로고나 마스코트가 디자인된 뱃지·볼펜·마스코트 인형·텀블러 등 공식 기념품 10여 종을 판매한다. 외국 선수단과 관광객들을 위해 김·라면·초코과자 등 대한민국 대표 상품을 별도 포장으로 구성한 '코리안 패키지'도 준비했다.

교촌치킨(오른쪽)은 이번 대회를 기념해 교촌의 대표제품으로 구성된 '교촌아시안샐러드팩' 모바일 교환권을 한정 판매한다. 개막일인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는 '교촌치킨 최고의 매장을 찾아라!' 행사를 통해 제품 교환권을 증정한다.

대한민국이 획득한 메달 수의 10배에 준하는 경품을 증정하는 '대한민국 파이팅! 뜨거운 함성은 교촌치킨에서!' 행사와 교촌치킨과 함께하는 응원장소 사진을 자사의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제품 모바일 교환권을 100명에게 증정한다.

인천지역에 많은 매장을 확보하고 있는 생고기 전문점 '육심당'은 인천 삼동점에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고 있다.

각국 선수단 숙소가 있는 남동구 인근 구월점과 만수점에 영어는 물론 중국어·일본어로 된 메뉴판까지 마련하고 아시안게임 손님 맞이를 끝냈다.

치킨브랜드 'bhc'는 지난달 종로지역에 아시안게임 관광객과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카페형 매장인 'bhc 비어존 종로본점'을 신규 오픈했다.

코오롱제약과 아니모비이탈, 지어스등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단부터 개별 참가 선수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맺었다.

/정영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동아오츠카, 클럽 파티 성료

동아오츠카(대표 이원희)가 지난 13일 서울 강남 클럽 신드롬에서 칵테일 파티 'It's Demistyle- SYNDROME'을 개최했다.

파티는 데미소다의 젊고 열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20대 소비자들과 공감하고 새로운 데미소다 칵테일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 회사는 방문 고객들에게 데미소다 애플·레몬·오렌지 등과 함께 보드카로 만든 칵테일을 제공했다. 다양한 칵테일 레시피를 소개해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DJ 춘자의 디제잉과 그룹 놀자(NOLZA)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데미소다 포토존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었다.

/황재용기자 [illegible]

강강술래 "문화 선물 받고 힐링하세요"

뮤지컬 '조로' 티켓, 길벗도서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고객들의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문화힐링 이벤트를 벌인다.

먼저 앙코르-커튼콜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뮤지컬 '조로' 공연티켓을 증정한다. 2014년 '조로'는 리부트(시리즈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 작품으로 화려한 무대와 흥겨운 선율, 스릴 넘치는 검술과 스턴트 액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한다.

공감 전문가인 로먼 크르즈나릭이 현대인에게 삶의 정수이자 인간관계의 핵심역량이 되는 공감능력의 중요성과 이를 키우는 6가지 습관을 이야기하는 '공감하는 능력', 공자와 소크라테스 등 위대한 지성들의 지혜가 담긴 영어 명언을 동영상 강의와 함께 배울 수 있는 '제프스터디 영어명언 100강' 등 길벗의 추천도서도 선물한다.

오는 30일까지 공식페이지(call.co.com) 이벤트에 응모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추첨으로 10월 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환절기날씨로 면역력이 떨어진 고객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쇼핑몰(ssll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할인행사도 벌인다.

100% 한우로 우려내 맛이 진하며 면역력 증진 및 기력 보충에 좋은 한우사골곰탕 대용량박스(800㎖ 6팩·18인분)는 3만4400원, 소용량박스(350㎖ 10팩·20인분)는 3만78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정영일기자

식·음료업계, 환절기 보양식 판촉전

흑삼·흑염소·산삼 등 면역력을 증가·기력 회복 재료 활용

아침·저녁 일교차가 10도를 넘어서는 환절기다. 허해진 건강을 위해 보양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에 식음료 업계에선 홍삼은 기본이고 홍삼 보다 더한 효능과 정성을 앞세운 흑삼을 비롯해 흑홍삼·흑염소 등 다양한 보양 제품들을 내놨다.

CJ제일제당은 최근 홍삼 보다 더한 효능과 정성을 표방하는 '구증구포 한뿌리 흑삼진액'(사진 왼쪽)을 선보였다. 흑삼은 인삼을 한 번만 찌고 말리는 홍삼과 달리 인삼을 아홉번 찌 홍삼 고유의 사포닌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3 함량과 항산화 기능에 도움 주는 폴리페놀 함량도 높였다고 한다.

천호식품의 '지리산에서 자란 흑염소 한마리'는 지리산 일대에서 자생하는 풀을 먹으며 방목된 흑염소로 만들었다. GMP 인증을 받은 최첨단 설비 생산공장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추출해 간편하게 흑염소의 영양을 챙길 수 있다.

외식업계도 산삼·도라지 등 보양 재료를 활용한 음료 메뉴 개발을 통해 환절기 보양식 마케팅에 가세하고 나섰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드롭탑은 산삼을 이용한 프리미엄 눈꽃빙수인 '산삼 아이스탑'(오른쪽)을 판매하고 있다. 6년근 홍삼에 꿀을 혼합해 홍삼 특유의 쓴 맛을 경감시킨 '아이스탑 홍삼'도 배의 달콤한 맛이 도라지·생강의 쌉싸름한 맛과 조화를 이루는 '배도라지차', 오미자를 이용한 '석류오미자차' 등 환절기 면역력 강화와 감기 예방에 좋은 전통재료를 활용한 음료 메뉴들을 출시했다.

/정영일기자

'3분 모닝팩'하면 '광채 피부'

건조한 환절기엔 수분 공급 충실해야
입자 고운 멜팅파우더 팩트로 마무리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피부 장벽이 손상돼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쉽다. 특히 여름내 더위에 지쳐 있는 피부는 극도로 예민하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성아 원장의 코스메틱 브랜드 '조성아22'가 14일 '촉촉한 광채 피부'를 연출하는 노하우를 공개했다.

환절기에는 아침 저녁 피부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세안법도 달라야 한다. 아침에는 가볍게 물로만 세안하는 것이 좋다. 아침부터 딥클렌징으로 세안을 할 경우 피부에 자극을 줘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고 당기게 만들 수 있다.

가벼운 물 세안은 밤새 지는 동안 피부에 만들어진 천연 보호막의 유실을 막아 준다.

평소 피지 생성이 활발한 지성 피부라면 수분감 있고 자극이 적은 촉촉한 클렌징 폼을 사용한다.

저녁에는 메이크업과 낮 동안 피부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닦아내기 위해 딥클렌징을 해야 한다. 되도록 미세한 거품 클렌저를 사용하고 세안 후에는 고보습 크림으로 수분을 채워준다.

◆아침 스킨케어 시 수분 공급

촉촉한 피부 연출을 위해서는 아침 스킨케어가 중요하지만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면 양치질을 하는 3분간 만이라도 수분팩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아침에 하는 수분팩은 피부에 좋은 영양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아침에 기능성 제품 사용은 피한다. 낮 시간 동안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성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서다.

두꺼운 베이스 메이크업은 깨끗한 피부처럼 보이게 하지만 정작 숨구멍을 막아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든다. 따라서 가벼운 고수분 베이스 제품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파우더처럼 보이는 조미림사 제형의 조성아22 '멜팅 파우더 팩트'는 입자마자 80% 이상의 수분과 비타민C 등이 함유돼 촉촉하게 빛나는 피부를 연출한다.

/메지혜기자 [illegible]
metroseoul.co.kr

멋쟁이는 판초·와이드 팬츠로

완연한 가을, 옷장에도 변화를 줘야할 때다. 여름내 입던 옷은 내년을 위해 깨끗하게 빨아 정리해두고, 가을·겨울 아이템으로 채워야 한다. 여성 캐쥬얼브랜드 미샤와 잇미샤가 패셔니스타들을 위해 이번 시즌 옷장에 꼭 걸어둬야 할 아이템을 잡아줬다.

멋쟁이 소리를 듣고 싶다면 코튼·울 등 소재 특유의 질감이 돋보이는 아우터를 준비하는 게 좋다. 올 겨울에는 담요처럼 부피감이 있는 판초나 코트를 앞세운 노마드 시크룩이 유행할 전망이다. 볼륨감 있는 아우터에 잘 어울리는 H라인 스커트나 슬림한 슬랙스도 장만해 둘 만하다.

가을철 머스트 해브 아이템은 단연 니트 톱이다. 두꺼운 아우터를 입기에 이른감이 있는 10월까지는 니트 스웨터나 카디건을 자주 입게 되는데, 도톰한 니트에는 원피스나 데님 팬츠가 환상의 짝꿍이다.

이번 시즌 대세는 와이드 팬츠다. 통이 넓은 팬츠는 수년간 이어진 스키니진 열풍을 뛰어 넘어 인기를 끌고 있다. /박가연기자

발 끝, 컬러풀하고 부드럽게…

메트로신문 '신데렐라를 찾아라' 이벤트 실시

올 가을 발 끝에 부드럽고 선명해진다. 라이프스타일 슈즈 브랜드 크록스가 신소재를 사용해 착용감을 높인 '렌 컬러라이트 라인'을 선보였다.

크록스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신소재 '컬러라이트'는 가죽 느낌의 소재로 고급 수제화처럼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가죽보다 가볍다. 또한 다양한 컬러를 선명하고 고급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렌 컬러라이트 라인은 옆 뒤 등 각각의 면을 자르지 않고 통으로 만들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신발 안감에 초극세사 '마이크로파이버'를 사용해 부드럽고 포근하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 중창과 밑창에는 크로슬라이트 재질을 적용해 가벼우면서도 푹신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덧붙였다.

여성용 제품은 '발레 플랫 과 로퍼' 등 2가지 디자인으로 각각 7만4900원, 8만4900원이다. 발레 플랫은 블랙·에어즈넛/텀블위드·네이비/텀블위드·페퍼/텀블위드·벡터/텀블위드·선샤인/텀블위드 등 6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로퍼는 에어즈넛/텀블위드·네이비/텀블위드·페퍼/텀블위드·주니퍼/아일랜드 그린·로열퍼플/에메시스트·선샤인/텀블위드 등 6가지로 출시됐다.

남성용 로퍼는 8만9900원이며 색상은 블랙·마호가니·네이비/텀블위드·에이즈넛/에스프레소·세룰리안블루/네이비 등이 있다. /박지원기자

◆신데렐라를 찾습니다

국내 유일의 무료종합일간지인 메트로신문이 멋내기 좋은 가을철을 맞아 애독자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발 끝에 힘을 실어줄 크록스 신발입니다.

9월 25일까지 메트로신문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와 메트로신문 페이스북(www.facebook.com/metroseoulnews)에 ▲신발을 선물 받거나 주고자 하는 이유 ▲원하는 사이즈를 30자 이내로 써서 응모하시면 추첨을 통해 총 15명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단 제품 색상과 사이즈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첨자는 9월 29일 개별 통보합니다.

<여성용>
발레플랫 230 블랙 1족
발레플랫 240 블랙 1족
로퍼 230 페퍼/텀블위드 1족
로퍼 230 네이비/텀블위드 8족
<남성용>
남성로퍼 265 마호가니/마호가니 2족
남성로퍼 280 마호가니/마호가니 2족

metro

아이엘투어, 특가 골프여행 선봬

마닐라·연태·청도 등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 가능

골프 전문 여행사 아이엘투어(www.ilgolf.co.kr)가 국내 골프여행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가을·겨울시즌 해외 골프여행 특가 상품을 선보였다.

먼저 인천공항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중국 연태는 한국인 골퍼들에게 인기 있는 지역으로 3박4일 일정과 4박5일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남산동해CC에서 VIP 초청 라운딩을 즐길 수 있으며 송도CC와 국제CC에서도 라운딩을 할 수 있다.

또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의 동남아 지역에서 무제한 라운딩을 하고 싶다면 마닐라 푸에르토아줄 골프장 3박5일 상품이 제격이다. 오는 26일과 다음달 17일 출발하는 이 상품은 왕복 항공료(제주 필리핀항공)와 숙박, 식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중국 청도의 크리스탈베이는 전략 라인 코스로 유명하다. 복잡한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한가하고 여유로운 라운딩이 가능하며 10월 2일 출발한다. 문의 02)542-4242·http://blog.naver.com/golfcondo /황재용기자 [illegible]

르네상스 서울호텔, 가을 패키지 출시

고객 맞춤형 혜택 제공

르네상스 서울호텔이 도심에서 가을의 낭만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의 로맨틱 패키지 'Falling in LOVE 패키지'를 선보였다.

11월 30일까지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는 총 3가지로 구성돼 있다. 공통적으로 실내 수영장, 르네상스 레크레이션 센터 무료 이용 및 사우나 50% 혜택이 제공된다.

또 디럭스룸에서의 1박을 포함한 'Falling in LOVE package Ⅰ'은 실속 있는 가격에 가을날의 낭만적이고 여유로운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며, 연인을 위한 'Falling in LOVE package Ⅱ'는 기본 공통 혜택과 함께 디럭스룸 1박과 카페 엘리제 2인 무료 조식, 객실 내 레드와인 1병과 모둠 치즈 플레터 세트 1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가족을 위한 'Falling in LOVE package Ⅲ'에는 package Ⅱ의 혜택에 도림을 직접 선택해 만들 수 있는 르네상스 나만의 회자 1판과 음료 2잔이 추가되며 소이 캔들 1개가 선물로 증정된다. 문의 02)2222-8560 /유제원기자

2PM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정규 4집 '미친거 아니야(Go Crazy)'로 1년 반 만에 컴백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 오후 2시 같은 그룹 2PM이 네 번째 정규 앨범 '미친 거 아니야(Go Crazy)'로 돌아왔다. 무대 위에서 아크로바틱을 접목한 안무를 선보이던 패기 넘치는 신인의 모습은 이제 사라졌다. 하지만 준케이·닉쿤·택연·우영·준호·찬성 여섯 멤버의 컴비네이션 시간의 흐름만큼 여유가 더해졌다.

◆ 솔직해도 너무 솔직하다

나이들 곡 '미친 거 아니야'는 멤버 준케이의 자작곡이다. 2008년 데뷔 이래 멤버가 만든 노래가 타이틀곡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래 첫 부분에 'JYP'라고 속삭이는 박진영의 목소리가 없단 뜻이다. 박진영 프로듀서의 도움 없이 앨범을 만든 기분은 어떨까.

"아무래도 진영이 형의 프로듀싱에서 벗어난 게 처음이라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커요.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만약 이번에 실패한다면 다시 진영이 형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어요(웃음).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진영이 형의 가이드 보컬 없이 멤버 각자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편안하게 녹음을 했죠."(택연)

"준케이 형은 에너지를 엄청 강조했어요."(찬성)

"처음부터 진영이 형의 노래를 하지 말아야겠다란 생각은 없었어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을 뽑으는 마감기한이 있었어요. 진영이 형을 포함해 다른 멤버, 작곡가 분들이 준비해 온 노래가 있었는데 전 마감날 아침까지도 노래를 준비 못한 상태였죠. 결국 아침 6시부터 '미친 거 아니야'를 만들기 시작해 저녁에 가져갔더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타이틀곡이 됐는데 진영이 형 표정이 안 좋았어요(웃음). 3번이나 반복해서 듣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꾸준히 작곡 공부를 해왔는데 데뷔 후 처음으로 타이틀곡을 쓰게 돼서 영광스러워요. 진영이 형도 제 실력을 몰랐다며 칭찬해줘서 기뻤어요."(준케이)

◆ 아이들이 쓴 가사 맞나요

'미친 거 아니야'는 오늘 밤 신나게 놀아보자는 내용의 미디엄템포 댄스곡이다. 준케이가 아침 6시부터 썼다는 가사가 심상치 않다. 특히 '2차 가자', '오늘 밤 미쳐버리고 작정한 놈들이야', '미치도록 달려잔 말이야' 등의 가사는 이제까지 아들이 보여줬던 건강한 소년 느낌과는 거리가 있다. 술 마시고 돌아와 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준케이는 손을 키보 저었다.

"원래 평소에 '미친 거 아니야?'라는 말로 노래를 쓰고 싶단 생각을 늘 했어요. 정말 망설임 없이 한 번에 쓴 노래죠. 평소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았어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요. 아이돌이라고 해서 문제 될 법한 가사는 없어요."(준케이)

2PM은 프로듀서 박진영의 색이 짙게 묻어났던 그룹이다. 에너지 넘치는 안무와 '박진영 특유의 읊조리는 랩핑', 현란한 의상까지. 이번 앨범에선 그런 2PM을 만나볼 순 없는 것일까.

그룹 상징 아크로바틱 대신 막춤 선택
타이틀곡부터 수록곡 멤버 작사·작곡

"진영이 형이 저희에게 많은 기회를 줬어요. 선미 예은이처럼 피처링, 콜라보레이션 등 다른 회사 아티스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 안에서 저희들도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죠. 아마 타이틀곡을 써야 한다는 부담이 컸을 겁니다. 그 짐을 내려두고 저희에게 '이젠 너희가 한번 앨범을 만들어봐'라고 해주셔서 감사했어요."(우영)

◆ 나이 든 2PM? 여유 있는 2PM!

나수의 보이그룹이 '칼군무'를 선보일 때 2PM은 '아크로바틱'을 택했다. 무대 위에서 날아다니는 그들의 춤은 2PM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라고 너스레를 편다. 이번 앨범에선 아크로바틱 대신 2PM의 '막춤'을 볼 수 있다.

"무게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과 즐기는 게 저희들의 목표고 마치 클래시공처럼 다들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처음 등장하는 '오토바이 춤'도 두어 기간에 던서 형들이 장난치듯 놀다 만든 거죠. 그 춤 빼고는 다 즉흥적으로 추는 거에요."(우영)

우영의 말 대로 2PM은 정해진 안무 없이도 하나의 무대를 이끄는 연륜이 생겼다. 여유와 흥이 더해진 2PM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김지은기자 kimjieun@metroseoul.co.kr·디자인/김아람

초근접 직장 리얼리티

오늘부터 출근

매주 | 토 | 밤 11시 10분 tvN / 9월 20일 첫방송

YG, 루이뷔통서 827억 투자유치

음악·패션·뷰티 시너지 기대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그룹 계열 사모펀드 L캐피털 아시아로부터 8000만 달러(약 82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양현석 YG 대표프로듀서와 양민석 YG 대표이사는 13일 오후 싱가포르 리츠칼튼호텔에서 LVMH그룹 계열 사모펀드인 L캐피털 아시아의 라비 타크란 대표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YG는 "음악과 패션·화장품 등 양사의 주력 사업이 결합돼 새로운 잠재적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양민석 대표는 "지난 18년 동안 YG는 빅뱅, 2NE1, 싸이를 포함해 최근 데뷔한 위너에 이르기까지 대중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들을 배출해왔고 그들은 각자 세계적인 브랜드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또 화장품과 패션 등 새로운 사업도 준비해왔다"면서 "L캐피털과의 파트너십은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려는 YG의 성장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양사의 교류, 협력 의지를 설명했다.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는 "패션과 음악은 함께 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K팝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과 패션을 통해 한국을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라며 양사의 협약에 관한 소감을 말했다.

앞서 YG는 운영자금 610억 50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해 L캐피털 아시아를 대상으로 우선주 13만여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지난달 20일 공시했다. 이와 별도로 L캐피털 아시아는 YG 최대주주인 양현석 프로듀서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일부를 2000만 달러(약 203억원) 규모로 매수할 예정이다.

2009년 설립된 L캐피털 아시아는 중국, 인도 등의 유망한 브랜드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 8월 운용 자산 규모는 10억500만달러였다. L캐피털 아시아가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순호기자 suno@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의 조인성·도경수(왼쪽)와 MBC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띠 동갑내기 과외하기'의 진지희·송재호. SBS·MBC 제공

'남남' '남녀' 능가하는 '신구' 케미

'선후배 환상 호흡' 조인성-도경수·유동근-박형식·송재호-진지희

신구의 조화가 눈에 띈다. 연기 경력 차이를 느낄 수 없는 케미를 보여주거나 나이 차를 극복하고 세대 통합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도경수(디오)는 SBS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서 조인성과 연기 호흡을 맞췄다. KBS2 주말극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유동근은 박형식과 한지붕 아래 살고 있다. MBC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띠 동갑내기 과외하기'는 띠 동갑 연예인들의 교감을 담고 있다.

◆ 경력초월 도경수 박형식

노경수는 지난 11일 종영된 '괜찮아 사랑이야'의 배우 신고식을 치른 그룹 엑소의 멤버다. 도경수는 작품에서 환시를 앓고 있는 장재열(조인성)의 어린 시절 살지가 투영된 자아인 한강우 역을 맡았다. 장재열의 연인 지해수(공효진)못지 않게 조인성과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많았다.

가수 엑소 출신이라는 배경과 장재열의 눈에만 보이는 설정까지 않는 인물을 연기하는 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선배 조인성과의 감정 연기에서도 밀리지 않으며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형식은 '가족끼리 왜 이래'에서 대선배 유동근의 아들 차달봉으로 출연 중이다. 지난해 SBS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주연급 역할을 맡으며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은 그는 '가족…'에서 호감 가는 캐릭터로 극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청년 실업자로서 홀아버지의 걱정을 사고 있는 차씨 집안 막내다. 실업자인 그는 집에 있는 아버지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인물이기도 하다. 박형식과 유동근의 연기 호흡은 시청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능력 있는 아들이 못 돼 아버지에게 미안한 아들과 그런 자식을 안타까워하고 사랑으로 품는 아버지의 모습이 감동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세대 통합 '띠 동갑'

'띠 동갑…'은 12세 차이부터 60세 차이까지 어린 스승과 나이 많은 제자 8명이 둘씩 짝을 지어 과외하는 이야기를 담은 리얼 예능 프로그램이다. 지난 12일 방송에선 송재호-진지희, 김성령-성시경, 이재용-손예유, 정준하-김희철 등 띠 동갑 연예인 커플들이 SNS, 영어, 기타, 중국어에 도전하고 과제에 성공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어쿠스틱 기타에 도전했던 이재용은 "아주 좋았다. 사람들은 꿈이 크다고 하겠지만 일렉기타도 쳐보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령에게 영어를 가르친 성시경은 "두 번 과외로는 아무 것도 안 된다. 진짜 잘 가르칠 수 있고 더 늘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특히 육십 나이차를 극복하고 진지희에게 SNS 사용법을 배운 송재호는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디지털 기기 격차가 세대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서울시향 강변음악회 개최

20~21일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시립교향악단이 20·21일 오후 7시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플라자 이벤트 광장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강변음악회 '클래식 포 2 나이트'를 개최한다.

'강변음악회'는 2012년부터 한강공원에서 개최한 서울시향의 대표적인 야외 공연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스티븐 머큐리오가 지휘봉을 잡고 오케스트라의 매력을 전한다.

머큐리오는 편곡자로도 활동해왔다. 안드레아 보첼리, 플라시도 도밍고, 안젤라 게오르규 등 클래식 스타뿐 아니라 사라 브라이트만 등 다양한 아티스트와 음악적 교류를 해오고 있다.

20일에는 '클래식 밴드 록 음악'을 주제로 퀸스트의 명성, 록 밴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등 보컬리스트 라일랜드 엔젤의 노래와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날 수 있다. 21일에는 '클래식 투 브로드웨이'를 주제로 정통 클래식과 함께 유명 뮤지컬 넘버들을 선보인다. 차이콥스키 '1812년 서곡'의 대포소리와 함께 한강을 배경으로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마지막 무대는 강변음악회의 하이라이트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음악회에는 1만여 석의 좌석이 마련된다. 의자형 객석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석도 이용할 수 있다. 티켓은 전석 무료다. /유순호기자

대규모 한류축제 '더 케이 페스티벌' 개최

인천 AG 폐막행사로 종합 문화 행사 열어

인천도시공사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에 맞춰 대규모 한류 문화 축제인 '더 케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더 케이 페스티벌'은 아시안게임 폐막 하루 전인 다음달 3일과 폐막일인 4일 인천 송도 23호 단빛공원에서 개최된다. 첫날 공연에는 실력파 아이돌 그룹 블락비,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며 밴드의 대중화에 앞장선 데이브레이크, 힙합 듀오 언터쳐블, 5인조 신예 남성 그룹 소년공화국, 재기발랄한 음악과 퍼포먼스로 무장한 술탄오브더디스코 등이 출연한다.

둘째 날에는 정상의 남녀 아이돌 그룹 비스트와 포미닛, 섹시 솔로 여가수 지나, 세계 무대로 위치를 넓혀가고 있는 아이돌 그룹 B.A.P, 4인조 밴드 디엠스, 인디 뮤지션의 신화를 보여준 신세계, 여성 포크 듀오 옥상달빛 등이 무대를 꾸민다.

비스트 지나

인천도시공사는 이번 축제를 아시안게임 방문객과 선수단, 스태프가 경기일정을 마친 후 즐길 수 있는 문화 종합 행사로 구성했다.

총 6만 평의 아시아를 대표하는 축제 장소인 송도 23호 단빛공원에서 펼쳐질 이번 행사는 K팝 콘서트뿐 아니라 K푸드, K패션, K뷰티, K툴, K스마트IT와 같은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전시와 체험 공간을 함께 마련한다.

행사 관계자는 "아시아를 대표할 축제로 발돋움해 한류를 알리게 될 이번 페스티벌은 인천도시공사와 이노션월드와이드 주관으로 향후 유사한 시즌에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라며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해외 관객이 축제를 찾고 즐기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순호기자

감성 자극하는 '아트버스터'의 반란

다양성 영화 새 시장 모색…부익부 빈익빈 우려도

또 하나의 다양성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원스'로 잘 알려진 존 카니 감독의 신작 '비긴 어게인'이 그 주인공이다. '아트버스터' 영화의 반란에 극장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긴 어게인'은 여름 대작들의 흥행 대결이 한창이던 지난달 13일 185개의 스크린에 걸렸다. 첫 주말 박스오피스 성적은 9위에 불과했다. 존 카니 감독의 전작 '원스'의 기록(23만,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을 뛰어넘는 정도의 성적이 예상됐다.

그러나 관객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여름 대작들 사이에서도 선전한 '비긴 어게인'은 추석 영화들의 개봉 러시 속에서도 관객을 꾸준히 모으며 박스오피스 상위권까지 성적이 올랐다.

개봉 5주차 주말인 지난 13일 토요일에는 개봉 첫 날보다 약 3배 많은 442개 스크린에서 14만4664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누적 관객수는 172만을 돌파했다. 올해 개봉한 다양성 영화 중 최고의 흥행 성적이다.

아트버스터는 주류 상업영화 못지않은 흥행 성적을 올린 다양성 영화를 일컫는 신조어다. 지난 3월에 개봉해 전국 77만 관객을 모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함께 처음으로 등장했다. 지난 5월에는 '그녀'가 34만 관객을 기록하면서 올해 극장가의 새로운 화두로 자리 잡았다.

아트버스터 영화 이전에도 다양성 영화의 흥행 돌풍은 여러 차례 있었다. 2007년에는 '원스'가, 2012년에는 '미드나잇 인 파리'가 극장가에서 조용한 파장을 일으켰다. 2009년 개봉한 '워낭소리'와 '똥파리'는 한국 독립영화가 대중적으로 주목 받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트버스터 영화는 과거와 달리 극장가의 새로운 시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그녀', '비긴 어게인'의 흥행 요인은 바로 '감성'이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동화적인 정서, '그녀'의 감성적인 이야기와 영상미, '비긴 어게인'의 따뜻함을 담은 음악 등이 그렇다. 감성을 자극하는 영화들이 극장가 주요 관객층인 20~30대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아트버스터는 다양성 영화의 새로운 흥행 코드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한계도 존재한다. 아트버스터로 분류되는 이들 세 편의 영화 모두 할리우드 감독과 스타 배우가 만난 '인디 무비'다. 특히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그녀'는 할리우드 직배사인 이십세기폭스코리아와 UPI코리아를 통해 국내에 소개됐다.

다양성 영화 역시 흥행도 국적에 따라 수입사와 배급사의 힘에 따라 부익부빈익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아트버스터가 극장가의 다양성을 확대할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일종의 유행처럼 소비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할리우드 유망주 스크린으로…

해외 화제작 '더블' '킬 유어 달링' 잇따라 개봉

할리우드 차세대 유망주들의 활약을 담은 영화들이 가을 극장가를 찾는다.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돼 화제를 모은 작품들이다.

소셜 네트워크'의 제시 아이젠버그와 박찬욱 감독의 할리우드 진출작 '스토커'에 출연한 미아 바시코브스카는 오는 25일 개봉 예정인 영화 '더블: 달콤한 악몽'에서 호흡을 맞췄다.

'더블: 달콤한 악몽'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분신'을 원작으로 한 영화다. 선댄스영화제, 토론토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을 통해 소개됐다.

제시 아이젠버그는 극중 두 주인공 사이먼과 제임스로 1인2역 연기를 선보였다. 미아 바시코브스카는 사이먼과 제임스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여인 한나 역으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매력을 발산했다. 두 사람은 이 작품을 통해 실제 연인으로 발전해 화제가 됐다.

'해리 포터' 시리즈의 다니엘 래드클리프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으로 주목받은 데인 드한은 다음달 16일 개봉하는 '킬 유어 달링'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킬 유어 달링'은 1944년 비트 세대라 불린 청춘 작가들과 그 중심에 있던 치명적인 뮤즈 루시엔의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드라마다. 선댄스영화제, 베니스국제영화제, 토론토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됐다.

영화 '더블: 달콤한 악몽'의 제시 아이젠버그(위), 미아 바시코브스카. /찬란 제공

다니엘 래드클리프는 미국 시인 앨런 긴즈버그 역을 맡았다. 외모는 물론 말투까지 실존 인물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데인 드한은 루시엔 역을 통해 오묘한 눈빛과 퇴폐미를 담은 열연을 펼쳤다. /장병호기자 solanin@

'두근두근 내 인생' 해외서도 본다

중국·대만·홍콩·베트남서 개봉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감독 이재용)이 중국·대만·홍콩·베트남 등 해외 4개 지역 개봉을 확정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제34회 하와이 국제영화제의 '스포트라이트 온 코리아' 부문 갈라 프레젠테이션에 공식 초청돼 해외 관객들과 처음 만났다. 이어 아시아 지역 4개 국가 개봉을 확정해 해외에서의 인기도 이어갈 예정이다.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측은 "'두근두근 내 인생'의 해외 개봉은 주연 배우 강동원, 송혜교의 연기 호흡, 그리고 이재용 감독의 섬세한 연출로 이뤄낸 성과"라고 밝혔다. 중국 개봉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중국에서

좋은 흥행 성적을 거뒀던 '만추' 등 이을 작품으로 주목 받고 있다"고 전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선천성 조로증을 앓고 있는 아들과 부모의 이야기를 가슴 뭉클한 가족애로 그려냈다. 지난 3일 개봉해 전국 극장가에서 상영 중이다. /장병호기자

'카트' 토론토영화제서 첫 공개

사회적 주제·연기 호평

영화 '카트'(감독 부지영)가 제39회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돼 현지 관객과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토론토국제영화제는 작품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갖춘 영화들을 주로 소개하는 북미 지역 최대 영화제다. '카트'는 영화제의 '도시기행' 부문에 공식 초청돼 지난 7일 오후 6시(현지시간) 빌라이트박스 극장에서 공식 상영됐다.

부지영 감독은 이날 상영에 앞서 관객에게 "여러분이 전 세계에서 '카트'를 처음 보는 관객들이다. 제게도 정말 흥분되는 자리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화 상영 후 관객은 열찬 박수로 화답했다. 특히 캐나다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점에 깊은 공감을 보냈다. 언론들도 영화의 주제, 배우들의 캐스팅과 안정적인 연기 등을 높게 평가했다.

'카트'는 부당해고를 당한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직원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오는 11월 국내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한국, 말레이시아에 3-0 완승

14일 오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축구 A조 예선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기에서 한국 팀의 추가골을 넣은 김승대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예선전에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3-0 완승을 거두며 아시안 게임 첫 승전보를 알렸다.

이광종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4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예선 A조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를 만나 3-0으로 승리했다.

이날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기는 한국 선수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첫 경기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3만 3천명의 관중이 몰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한국은 김신욱을 최전방 공격수로 하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다. 윤일록과 안용우가 좌우 측면 미드필더 자리를 맡았고 김승대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았다. 여기에 박주호와 이재성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발을 맞췄으며, 왼쪽부터 김진수 김민혁 장현수·임창우가 포백을 구성했다. 김승규가 골문을 지켰다.

한국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한 수 아래로 여겨진 말레이시아를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그럼에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수비라인을 잔뜩 내린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제대로 경기를 펼치기 어려웠다. 윤일록 김신욱-김승대가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했으나 골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승세를 잡기 시작한 것은 전반 26분 임창우의 골이 터지면서부터였다. 임창우는 안용우의 코너킥을 머리로 받아 한국에게 선제골을 안겼다. 이후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밀집 수비를 흔들면서 더 많은 골 기회를 맞이했다.

후반 32분에는 김신욱이 페널티 지역에서 김승대와 원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왼발로 슈팅해 추가골을 넣었다. 이어 후반 35분 김승대가 페널티 지역에서 상대 수비수들을 드리블로 따돌리고 골을 넣어 한국의 승리를 확정지었다.

예선 1차전 승리로 한국은 승점 3점을 확보해 같은 조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A조 공동 1위에 랭크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서 펼쳐진 라오스와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각 조 2위까지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한국은 오는 17일 오후 8시 안산와 스타디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2차전을 벌인다.

/장병호기자 solan@metroseoul.co.kr

'코스타 해트트릭' 첼시 선두

기성용 활약에도 스완지 시즌 첫 패

스완지시티의 기성용이 첼시 공격수 이덴 아자르를 거세게 밀어내고 있다. /AP 뉴시스

기성용의 스완지시티가 강호 첼시의 벽에 막히며 개막 후 이어온 리그 연승 행진을 멈췄다.

스완지시티는 1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의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디에고 코스타의 골 폭격을 막지 못하고 2-4로 패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와 나란히 3연승을 달리던 스완지시티는 시즌 첫 패배를 안았다.

올 시즌 스완지시티 전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기성용은 4경기 연속 풀타임 출전하며 초반부터 팀 공수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전반 11분 첼시의 수비수 존 테리의 자책골을 유도하는 결정적인 패스를 이어주며 1-0으로 기선을 잡았다.

그러나 첼시는 스페인 대표 출신의 특급 골잡이 디에고 코스타의 소나기 골로 스완지시티를 제압했다. 디에고 코스타는 전반 45분 헤딩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 11분 단짝인 세스크 파브레가스의 패스를 받아 역전골을 터트렸다.

디에고 코스타는 후반 22분 라미레스의 패스를 받아 쐐기골을 넣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올 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한 디에고 코스타는 4경기에서 총 7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단독 1위를 질주했다.

첼시는 코스타와 교체 출전한 로익 레미의 후반 36분 추가골로 4-1로 앞섰다. 스완지시티는 후반 42분 존조 셸비의 골로 한 점을 따라붙는데 만족해야 했다.

/유순호기자 suno@

일본도 놀란 이승우 '원맨쇼'

U-16 대표팀 일본 꺾고 AFC 챔피언십 4강 진출

한국 16세 이하(U-16) 축구 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십 4강에 진출했다.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4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의 8강전에서 2-0으로 승리했다.

한국 축구의 차세대 간판으로 불리는 이승우(사진)의 활약은 이날 경기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이승우는 전반 41분 김정민과 절묘한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선제골을 뽑았다.

후반 2분에는 한국 진영 하프라인 전부터 볼을 잡고 돌파를 시작해 약 60m를 질주해 일본 골망을 흔들었다. 일본 수비 3명과 골키퍼를 제치고 골을 넣은 '원맨쇼'였다. 이승우의 빠른 속도에 일본 수비수들은 이승우를 전혀 저지하지 못한 채 그저 뒷모습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다.

이승우는 앞서 말레이시아 조별리그 2차전과 태국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연속으로 골을 터트리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였다. 일본과의 4강전에서도 2골을 기록하며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 3경기 연속 골로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한국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십 4강 진출로 이 대회 상위 4팀에 주어지는 내년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했다. 한국의 U-17 월드컵 출전은 2009년 대회 이후 6년 만이다.

한편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시리아의 8강전 승자를 상대로 17일 준결승전에 나선다. /장병호기자

류현진 MRI 검사…18일 등판 불가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왼쪽 어깨 정밀진단을 받는다.

14일 다저스 구단에 따르면 류현진은 이날 팀 주치의 닐 엘라트라체 박사와 만나 간단한 검진을 받았으며 LA로 들어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말 동안 샌프란시스코 원정에 동행한 뒤 LA에서 검사를 받는 점으로 미뤄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예정된 등판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류현진은 18일 콜로라도 로키스와 원정경기에 등판할 예정이었지만 16일 검진 일정을 고려하면 이날 등판은 불가능하다.

류현진은 1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1이닝 동안 4실점한 뒤 왼 어깨 통증으로 조기강판됐다. /유순호기자

프로축구 전적 14일

전북	1	0	성남
제주	0	0	수원
상주	1	0	전남

프로야구 전적 14일

■잠실

삼성	001	020	000	3
LG	006	330	00X	12

■문학

NC	010	001	100	3
SK	000	012	02X	5

■대전

KIA	010	020	300	5
한화	210	025	00X	10

■사직

두산	101	000	100	3
롯데	030	000	001	4

소고기로 만든 패티가 두 장!

불고기버거의 지존

New

빅불

원조

※ 제품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점포 제외